

## “마운드를 부탁해”

### KIA 윤석민 어깨몽킴에 등판일정 주말 연기 ‘대타 선발’ 진민호·동기 광정철에 운동화 선물



어제 근육 몽킴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거른 KIA 타이거즈의 윤석민이 히어로즈와의 주말전에 다시 출격한다. 선발 투수진들의 훈련이 있었던 22일 윤석민도 무등경기장에 나와 상태를 점검했다. 어깨 근육이 뭉치며 23일 예정됐던 선발 등판 일정을 미뤘지만 큰 이상이 없어 주말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윤석민은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맹활약하며 ‘국민 에이스’로 급부상하면서 올 시즌 KIA 팬들의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윤석민은 올 시즌 겨우 2승을 챙겼다. 두산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패전투수가 됐던 윤석민은 이후 네 차례의 선발등판에

서 2패만을 기록했다.

한기주의 부진속에 임시 마무리로 돌아섰던 5월 15일 SK 와이번스와의 문학경기에서 계투진으로 등판해 거둔 승리가 시즌 첫 승이었다. 그리고 다시 선발로 돌아온 5월 29일 LG 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서 얻은 승리가 윤석민의 마지막 승리다.

2승3패7세이프. 유난히 승운도 따르지 않았다.

23일 경기전 데이터를 살펴보면 조범현 감독은 “올 시즌 광정철 등판 날 승률이 좋다”며 한 마디를 했다. 광정철이 선발로 등판한 날 팀은 7승1패1무를 기록했다.

잠시 후 조 감독은 “그렇게 보면 윤석민은 정말 승운이 없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윤석민 선발 경기에서 팀은 1승7패로 부진했다.

시즌 초반에는 WBC의 휴유증에 시달렸고, 이후 선발에서 마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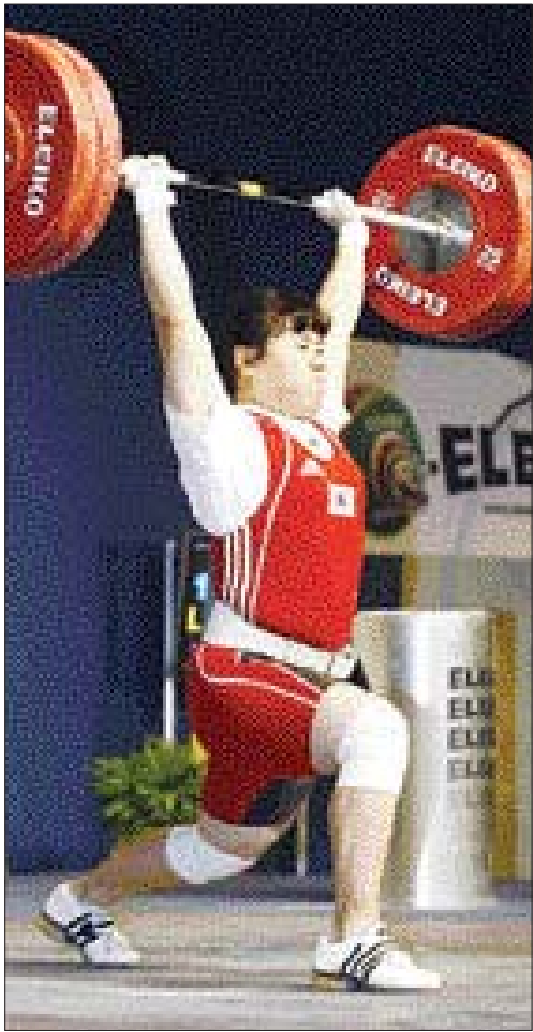
리를 오가며 팀의 굵은 일을 하느라 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다른 선수들이 마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에 반해 이래저래 어려운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민이 긴 슬럼프에 빠질까 팬들은 노심초사다.

하지만 윤석민은 팬들의 우려와 달리 ‘이상무’다.

23일 윤석민은 노란 새 운동화를 신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손에도 새 운동화가 들려 있었다. 입단 동기인 광정철에게 선물할 빨간 운동화였다. 자신을 대신해 선발로 출전한 또 다른 동기인 진민호에게는 파란 운동화를 선물했다.

올 시즌 1군에서 함께 고생하고 있는 동기들과 새 운동화로 분위기 전환을 한 윤석민, 이번 주말 3승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은행 이애라 한국주니어 신기록 세계역도선수권 은 2·동 1

한국여자역도 기대주 이애라(광주은행·사진)가 제 15회 세계주니어 역도 선수권대회에서 한국주니어 신기록을 수립하며 은메달 2,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이애라는 23일 루마니아 콘스탄티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75kg급 용상에서 135kg을 기록, 지난 2003년 이연하(제주도청)가 세운 132kg 보다 3kg 더 들어올려 한국주니어 신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이애라는 지난 3월 춘계여자역도대회에서 인상(106kg)·합계(237kg) 이어 용상까지 한국주니어 신기록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영예를 안았다.

이애라는 또한 이번 대회 인상에서 98kg을 들어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다. 합계에서 233kg으로 중국 리 퉁안(250kg)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지난 2007년 전국체전 여고부 3관왕과 2008년 아시아를 넘어 세계선수권 대회 3관왕을 차지하는 등 차세대 역도 간판스타로 떠오른 이애라는 지난 1월 2009년 국가대표 선수로 뽑혀 태릉선수촌에서 구슬땀을 흘려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 광주체고 추진리 은 2·동 1

#### 전국여자역도선수권

광주체고 추진리가 제81회 전국 역도선수권 및 제 23회 전국여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 은메달 2개·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추진리는 23일 경기도 포천에서 열린 대회 여고부 58kg급 용상에서 95kg을 들어 라이벌 서정미(삼일여고·97kg)에 2kg 뒤져 아쉽게 은메달에 그쳤다. 또한 인상에서 75kg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추진리는 합계에서 170kg으로 서정미(177kg)에게 밀려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미국의 루카스 글로버가 23일 오전 (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파밍데일 베스페이스 골프장에서 열린 US오픈 최종라운드 9번홀에서 러프에 빠진 공을 쳐내고 있다. /연합뉴스

## ‘무명의 반란’ ... 글로버 US오픈 우승

### 4언더파 생애 첫 메이저 정상... 투병 아내위해 우승 노렸던 미켈슨 또 준우승

루카스 글로버(미국)가 제109회 US 오픈골프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글로버는 2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파밍데일의 베스페이스 골프장 블랙코스(파70·7천44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1개와 보기 4개로 3타를 잃었지만 최종 합계 4언더파 276타로 생애 첫 메이저대회 정상에 밟는 기쁨을 누렸다.

2005년 후나이 클래식에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첫 우승을 차지한 뒤 정상에 오르지 못했던 글로버는 개인 2승째를 US오픈 우승 트로피로 장식하게 됐다.

전날 4라운드 1번홀(파4)까지 공동 선두였던 리키 반스(미국)는 5번홀(파4)부터 8번홀(파3)까지 4홀 연속 보기로 무너져 공동 2위(2언더파 278타)로

떨어졌다. 전날까지 공동 3위권에 3타를 앞섰던 글로버 역시 전반 9홀에 3타를 잃는 등 오히려 중위권으로 밀려나서 못했다.

반스가 11.12번홀에서도 연속 보기로 우승 경쟁에서 밀려난 가운데 글로버는 15번홀(파4)에서 보기에 그치며 필 미켈슨, 데이비드 듀발(이상 미국)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나란히 3언더파로 세 명이 공동 선두에 나서며 연장 승부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미켈슨과 듀발이 나란히 17번홀(파3)에서 1타를 잃으며 글로버가 단독 선두를 되찾았다.

글로버는 16번홀에서 1.5m 거리 버디까지 잡아내 2타 차로 만들며 승기를 잡았다. 삼금 135만달러를 받은 글로버는 “인내심을 시험한 날이었다. 16번홀 버디가 우승의 원동력이었고”고 말했다.

듀발은 17번홀 1m 정도에서 시도한 파 퍼트가 홀을 돌아 나오는 바람에 끝까지 우승 경쟁을 벌일 기회를 잡지 못했다. 미켈슨과 듀발은 반스와 함께 2언더파 278타로 공동 2위를 차지했고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이븐파 280타로 공동 6위로 대회를 마쳤다.

아내 에이미가 유방암 투병 중인 미켈슨은 13번홀(파5)에서 이글을 잡으며 글로버와 함께 공동 선두로 뛰어올라 극적인 역전 우승을 노렸지만 15번홀과 17번홀에서 한 타씩 잃어 US오픈에서 5번째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은 3오버파 283타로 공동 16위, 최경주(39·나이키골프)는 12오버파 292타, 공동 47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 함평골프고 오지수 연장 점전끝 우승샷

#### KLPGA 2009 강산배 드림투어 5차전

신지에 고교후배 오지수(17·함평골프고·사진)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009 강산배 드림투어 5차전 정상에 올랐다.

오지수는 23일 강원도 문막 선추리21 컨트리클럽(파72·6천377야드)에서 열린 대회(총상금 4천만원, 우승상금 720만원) 최종 라운드에서 연장 점전 끝에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장희정(18·건대부고)을 제치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오지수는 이날 보기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내는 선전으로 장희정과 8언더파 136타로 동타를 이룬 뒤 연장 첫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 시즌 첫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어제까지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6위로(3언더파 69타) 1번홀(필드코스)에서 출발한 오지수는 전반 9홀에서 2타를 줄이며 패조의 스타트를 끊었다. 이후 후반 9홀에 들어서도 오지수는 보기 없이 버디만 3개를 더 뽑아내 5언더파 67타를 기록, 총합계 8언더파 136타(69-67)로 생애 첫 우승뿐 아니라 KLPGA 정회원 에 입회하는 경점사를 누렸다.

KLPGA에서는 드림투어(2부투어) 5개 대회에 모두 참가하고 평균타수가 74.00타 이하를 기록한 KLPGA 준회원에겐 정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오지수는 “우승도 물론 좋지만 KLPGA 정회원에 입회할 것이 너무 기쁘다.”고 우승소감을 밝혔다.

오지수는 지난 2005년 송원여중 1학년시절 뉴질랜드로 골프유학을 떠나 2006년 뉴질랜드 여자 아마추어(21세 이하 부문) 대회 최연소 우승(15세)을 시작으로 같은 해 타라나키 오픈(뉴질랜드 남자 프로대회) 여자부 우승과 2007년 뉴질랜드 여자 아마추어 대회 우승 등 실력을 검증 받은 유망주다.

2부 투어인 드림투어는 7월20일 충북 청원의 그랜드골프장으로 장소를 옮겨 6차전을 치른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